

# 랩톱 PC와 보험판매

## • 7년에 10배씩 늘어나는 컴퓨터기술

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재빨리 변화해 간다는 사실이다.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기술이고 전자기술이다.

예컨대 전자기술의 기반이 되고있는 반도체기술은 매 5년마다 기술수준이 10배씩이나 늘고있다. 5년에 10배씩이라면 5년이 2번 들어있는 10년에는 100배로 기술수준이 늘어난다. 「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」라는 말이 있지만,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(비유를 든다면) 10년에 강산이 100번도 더 뒤바뀌는 셈이 된다.

또 반도체기술, 그 중에서도 특히 IC(집적회로, Integrated Circuit)기술의 놀라운 발달에 힘입어 컴퓨터 기술수준도 매 7년에 10배씩 는다고 한다. 그 결과 7년이 3번 경과하는 21년 사이에 기술수준은 1000배로나 는다.

아닌게 아니라 21년 전인 1967년에 비해 컴퓨터 기술수준은 현재 정말로 약  $10 \times 10 \times 10 = 1000$  배로 향상되고 있다.

예컨대 21년 전인 1976년 당시

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값비싼 대형의 범용컴퓨터는 IBM 360 컴퓨터였다. 한 대에 500만 \$에서 600만 \$씩 했던 이 컴퓨터와 맞먹는 일을 현재는 단돈 5000\$(0.5만 \$) 내지 6000\$(0.6만 \$)의 32비트형 랩톱 PC(Lap Top Personal Computer, 랩톱개인컴퓨터)가 해내고 있다. 랩(Lap, 무릎) 톱(Top, 위) PC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 있는 휴대용의 작고 가벼운 개인컴퓨터란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. 무게라야 겨우 3kg ~ 4kg 정도의 이 랩톱 PC가 제작년 이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비지니스맨, 증권회사사원, 보험회사판매원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보급되어가고 있다. 예컨대 Tandy M200이라는 이름의 랩톱 PC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해 발매개시 1년 만에 100만대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.

## • 랩톱 PC의 활약상

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007 가방보다도 더 작은 랩톱 PC를 들고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여러 도시를 줍다하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

이 랩톱 PC(랩톱 개인컴퓨터)

는 크기는 작으면서도 무척이나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. 예컨대 이 랩톱 PC는 간단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수가 있다. 뚜껑을 열면 뚜껑의 내부는 액정 또는 플라즈마형의 표시판으로 둔갑한다. 전기코드선을 전화축에 연결하면 언제든지 전화회선을 통해 본사의 커다란 대형컴퓨터와 연결시켜 대형컴퓨터에 기억시켰거나 저장해 둔 통계수자나 갖가지 정보를 표시판 화면에 불러낼 수 있다.

물론 전화회선을 이용해서 본사의 대형컴퓨터와 회화도 할 수가 있다. 컴퓨터끼리 서로 정보를 입·출력시키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컴퓨터세계에서는 간단히 '회화를 한다' 또는 '데이터 통신을 한다'고 한다.

또 이 랩톱 PC는 본사의 대형 컴퓨터 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느 데이터 베이스회사의 대형컴퓨터와도 연결을 시켜 그 데이터 베이스회사의 대형컴퓨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표시판에 불러낼 수 있다. 이런 것을 PC 통신이라 하고 정보를 찾아내서 자기 PC(개인컴퓨터) 표시판에 불러내는 것을 「정보검색」이라 한다. 물론 정보를 사용했을 때



김 정 흠  
 (고려대학교 교수 · 물리학)

는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정보 사용료 또는 정보검색료를 데이터 베이스회사에 물어야 한다.

어쨌든 랩톱 PC의 등장으로 이젠 비지니스맨이나 보험회사 판매원이 어디를 가더라도 손쉽게 본사와 연결을 취할 수 있고, 갖가지 보험상품의 안내, 내용설명, 원리금과 월부금액, 갖가지 혜택 등등을 수표나 도표로 손님에게 보여주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가 있다.

- 플로피디스크를 쓰면 본사컴퓨터와 연결시키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

또 이 랩톱 PC는 보기와는 달리 굉장한 자체 기억장치도 갖고 있다. 표준적인 랩톱 PC는 500만 비트 즉, 국·한·영문으로 환산하면 약 30만자의 글을 기억시켜 둘 수가 있다. 그 외에 플로피디스크라는 직경이 약 9cm의 얇은 플라스틱판을 쓰면 각 보험상품별로 그 상품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장당 12만자씩 기억시켜 둘 수 있다. 그래서 손님이 장학보험을 원하면 장학보험의 상품 설명이 들어있는 플로피디스크를, 화재보험을 원하면 화재보험에

관한 상품 설명이 들어있는 플로피디스크를 꽂기만 하면 그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단추 몇개의 조작으로 아름다운 천연색도표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.

물론 이 랩톱 PC에는 타이프라이터 기능도 들어있다. 타이프라이터를 치듯 한 타씩 쳐내려가며 국·한·영문 혼용의 필요한 문서를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다. 이렇게 컴퓨터화된 타이프라이터를 워드프로세서(Word Processor)라고 한다. 워드프로세서란 문서작성기, 또는 문서정보처리기, 또는 문서편집·절판기라는 뜻이다.

또 규정된 기호를 입력시키면 계약서 양식마저 화면에 나타난다. 그 계약서양식에 보험의 종류, 연도, 기간, 매달 물어나갈 월부금, 지명, 주소 등을 기입하면 즉석에서 가 계약서가 작성된다. 물론 정식계약서는 본사에 가서 그날로 만들어 우송해주면 된다.

또 손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손님이 무엇이건 질문을 하면 랩톱 PC를 써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줄 수가 있다.

예컨데 도중에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고,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, 또

반년후·1년후·2년후에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 같은 것도 즉석에서 계산해 줄 수가 있다.

또 만약 만기가 된 후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얼마의 추가이자 붙는 것인지, 또 신용있는 손님(즉 기일은 어기지 않고 보험료를 문 손님)에게는 어떤 혜택, 예컨데 용자혜택이 있는지도 대번에 그 답을 화면에 불러내서 표시해 줄 수가 있다.

또 1년에 한번씩 있는 경품추첨때 운이 좋아 추첨에 맞아 등수에 들어가면 세계여행 티켓·국내여행 티켓·값진 경품 티켓 등을 받게되는 보너스상품의 설명도 해줄 수 있고, 또 장학보험의 경우 입학축하 보너스로 붙는 갖가지 경품도 소개되는 등 손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상품안내를 할 수 있다. 물론 이 모든 것을 단추 하나의 조작으로 그 자리에서 인쇄(프린트)해서 손님에게 줄 수도 있다.

외국에서 이미 시작된 이 랩톱 PC의 활용은 9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대유행이 되리라 예상된다. ☺